

서로를 돕는 것이 전부였네. 게다가 두 아이는 아이들처럼 무지해서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지. 두 아이는 아득히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나 자기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. 호기심이 저 산 너머로까지 뻗어가는 일이 없었던 게야. 자기들의 섬이 끝나는 곳이 세상의 끝이라 믿었고, 자기들이 없는 곳에 마음이 이끌리는 무언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었지. 서로가 서로에게 품은 애정과 두 어머니가 내보인 애정이 두 아이의 생동하는 영혼을 오롯이 채워주었네. 불필요한 지식으로 눈물 흘리는 일 따윈 없었고, 하잘것없는 도덕에서 따온 가르침이 갑갑함만 잔뜩 떠안기는 일도 전혀 없었지. 두 집안의 모든 것은 공동소유였기에,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조차 아이들은 몰랐네. 소박하나마 먹거리는 넉넉했으므로 무절제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, 감출만한 진실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지. 배은망덕한 아이들에게는 신이 끔찍한 벌을 내리기로 되어 있다 말해도 겁먹는 일이 전혀 없었다네. 두 아이에게 효심이란 어머니의 자애 속에서 싹튼 것이었으니 말이야. 두 아이가 종교에 대해 배운 것도 그 종교를 좋아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었어. 그러니 성당에서 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면 두 아이는 집에서든 밭에서든 숲에서든, 자기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순결한 두 손을

---

● 마에 라 부르도네(Mah??? de La Bourdonnais, 1696-1772)는 1735년 프랑스 섬에 부임했으며, 1746년까지 총독으로 재직했다.